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운동의탄 생

프레디펄먼

프레디펄먼
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운동의탄생
1969

<https://theanarchistlibrary.org/library/fredy-perlman-birth-of-a-revolutionary-movement-in-yugoslavia>
SNU 의 KOC

kr.theanarchistlibrary.org

1969

” 이단은언제나적보다더위험하다.” 한유고슬라비아철학자가폴란드맑스주의정권치하맑스주의지식인의탄압을분석한후남긴말이다. (S. Stojanovic, Student, Belgrade, 1968 년 4 월 9 일, 7 페이지.)

’노동자자주관리’가공식이넘이된유고슬라비아에서대중통제를위한새로운시도는공식이넘과그것이설명하는사회관계사이의골을보여주었다. 이를드러낸이단아들은일시적으로고립되었으며, 그들의투쟁은잠시탄압받았다. ’자주관리’라는이념은유고슬라비아노동민이창출한부와권력을성공적으로집중시킨영리기술관료주의적관료제의가면으로작동했다. 그러나, 그가면을단한번, 부분적으로만벗겨낸것만으로도그가면은효력을잃었다. 유고슬라비아의지배엘리트들이드러났으며, 그들의맑스주의적선언은한번공개되면더이상그들의통치를정당화할수없게되는신화라는사실이드러났다.

1968 년 6 월, 이론과실천, 공식선언과사회관계사이의격차는실천과사회활동을통해드러났다. 학생들은시위와평의회를통해스스로를조직하였고, 자주관리를내걸던체제는이렇게보기드문대중의자발적조직에경찰과언론탄압으로응답했다.

유고슬라비아의이념과사회의간극의성격은 1968 년 6 월이전에이미분석되었고, 그것을분석한이들은유고슬라비아를지배하는’혁명적맑스주의자’들이말하는’계급의적’이아니었다. 그들은유고슬라비아의혁명적맑스주의자, 이단아들이었다. 공식논평에의하면, 노동계급이권력을차지한사회에서는노동자가노동자자신에게맞서파업을하는것이어처구니없는일이기에파업이있을수없다. 그러나실제로는유고슬라비아에서보도되지않았을뿐, 파업은지난 11 년동안꾸준히, 그리고대규모로일어났다. (Susret, 98 호, 1969 년 4 월 18 일) 더나아가, ” 유고슬라비아의파업은노동운동의부활시도를나타내는현상이다.” 다시말하면, 노동자가지배하는사회에서노동운동이죽었다는뜻이다. ” 이는어떤이에게는모순처럼들릴수있다. 그러나노동자자주관리라는것이서류에만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모순이아닌것이다.” (L. Tadic, Student, 1968 년 4 월 9 일, 7 페이지)

노동자와학생이스스로통치하는사회에서, 노동자는누구에맞서파업을하고, 학생은누구에맞서시위를하는것일까? 이질문에대한해답은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연맹의선언문에서는찾을수없고, 유고슬라비아사회관계에대한, 선언과모순된다는이유로이단으로낙인찍힌, 비판적분석을통해서만찾을수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운동은진보와국가적이해관계에의해정당화된다. 유고슬라비아사회에서계획, 정책, 개혁은진보와노동계급의이름으로정당화된다. 그러나핵심계획을입안하는자는노동자가아니며, 그계획이노동자를위한것도아니다.

” 한쪽에는노동계급을이루는최저생활수준에미치지못하는삶을살아가는임금노동자가있다. 노동계급은경제개혁의땃가를온전히치르고

있으며,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길 강요받고 있다. 다른 한쪽에는 밤새 스스로를 자본화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사적 노동, 서비스, 상업, 중산층에 기반하여 존재한다. 그들의 자본은 노동이 아닌 투기, 중개, 개인 노동의 사적 관계로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법적 부패에서 나온다.”

이모순은 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의 가능한데, 맑스가 밝힌 사회관계가 노동계급의 이름을 내건 맑스주의 정당에 일으킨 사회주의 혁명을 겪은 사회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과 임금 (개인 소득이나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도 상관 없다) 을 맞바꾸고, 임금은 노동자의 물질적, 사회적 생존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만큼만 지급되며, 잉여 노동은 국가와 기업 관료들에 의해 착취되어 자본으로 전환, 노동자의 물질적, 사회적 생존 조건을 결정하는 외부 압력으로 돌아온다. 공식 역사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 자연맹이 권력을 쟁취한 1945 년에 착취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는 여전히 잉여 노동을 바쳐 국가와 기업 관료를 배불리고, 그들의 보상받지 못한 노동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보다 높은 권력에 의한 힘으로 돌아와 그들을 탄압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며, 착취당하는 것이다. 공식 역사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아는 1952 년 노동자 자주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노동계급이 관료제를 사회 집단에서 축출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노동자는 그들의 생활 수단 대신 생활 활동으로부터 소외되어 그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며, 법적 문서와 선언문에서는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노동과 생산으로부터 소외시킨 자들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러스트는 역사상 그들이 미국 노동계급의 막강한 생산력을 중앙 집중화하기 시작하려 할 때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1952 년 노동계급을 통제하던 사회 계층이 살아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일되고 중앙 집중화된 관료주의적 독점 체제의 해체는 모든 사회 활동 내 자주 관리 조직 (노동자 평의회, 자주 관리 기관 등) 의 망으로 변화하였다. 형식적, 법적, 명목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자주 관리 사회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관계의 상황에서도 적용되는가? 자주 관리의 이면의 자주 관리 기관 안에서는 두 거대하고 대립하는 경향이 생산 관계에서 등장하였다. 의사결정의 중심부에는 분산되고 변형된 관료주의가 존재한다. 이는 노동자와 그들의 이해에 맞서 노동 관리와 잉여 노동 분배의 독점을 유지하는 비공식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노동이 아닌 관료주의적 위계 구조상의 지위에 기초해 이를 전용하고, 조직 또는 지역의 대표자를 영원히 권력을 쥐게 하여 그들의 직위와 기존의 구분, 수준 이하의 노동, 비합리적 생산을 유지하고 이를 노동자의 집으로 지우게 한다. 그들 사이에서 그들은 독점 소유의 대표자처럼 행동한다. (...) 다른 한편에는 온전히 사회주의적이고, 자주 관리의 경향을 띠며 이미 일어서기 시작한 운동이 있다.” (Pecujlic, 같은 책)

이온전히사회주의적인경향은노동자가자신이생산한상품에의해착취당하게하는의존성과무기력에맞선, 그리고모든사회활동에대한통제권을그행위자가쟁취하기위한투쟁을상징한다. 그러나이미스스로사회/경제/법체제가자발적조직되고자주적으로통제된다고주장하는사회에서이러한투쟁이어떠한형태로받아들여질수있을까? 어떤혁명적투쟁이공산당이국가권력을쥐고, 이당이스스로관료주의적통치를끝장내고자주관리를공식이념으로채택했다고하는상황에서발전할수있을까? 이투쟁에서는이미자본을몰수하여자본가계급에대한몰수도있을수없고, 공산당이지난사반세기동안국가권력을장악했기에혁명적맑스주의정당의국가권력쟁취도있을수없다. 오직다시했을때에는그전보단낫다는확신속에서해왔던일을반복하는것만이가능하다. 그러나과거의실패로전망을한정지을만큼정치적상상력이그렇게부족하지는않다. 유고슬라비아에서도다른곳과마찬가지로, '자본가계급의사유재산이몰수와' '노동계급의조직'(즉공산당)으로의대체, '노동계급의조직'의국가권력쟁취, 그리고권력을권공산당의다양한형태의'사회주의'에대한선언은이미역사적사실이며, 이는상품생산, 노동소외, 강제노동의종말뿐 아니라대중의자발적조직과자주적통제의시작조차도의미하지않는다는사실을이제깨달았다.

결과적으로, 이미'멋진신세계'과같은시각에서산업화의가속과사회관계의합리화를위한효율적도구임이검증된투쟁의조직방식은노동대중전체의일부에대한독립적이고비관적인기획과통제를위한투쟁의조직방식이될수없다. 정당관료에의한국가권력쟁취는그정당이스스로를'노동계급의조직'이라고칭하고그들의통치를'프롤레타리아트독재'나'노동자자주관리'라고칭한다고해도그이상으로나아갈수없다. 또한,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노동계급의조직'이국가권력을쟁취하는것이노동자의사회적생산통제로나아가는길의단계도, '노동자자주관리'라는공식선언도이를실현하기위한단계도될수없음을보여주었다.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최소한역사적으로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이세계최초로모든단계의사회적삶에있어권력의탈소외를위한투쟁에나섰음을보여줄뿐이다. 그러나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은그러한투쟁에앞장서지못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학생들이이러한투쟁에앞장섰고,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세계최초도아니었다.

노동계급을조종하기위해맑스주의적단어를쓰면서벌어지는정당의국가권력장악은그와완전히다른역사적사명인상품관계의폐지와사회주의적관계의건설과구분되어야한다. 반세기동안전자는후자를가장하여등장하였다. '신좌파'의등장은이혼동을끝장내었다. 전세계적인부흥을경험하고있는이혁명적운동은정당관료를국가권력에밀어넣는것거리를멈추고, 이미권력을권관료체제에맞선다는특징을갖고있다.

자들은마땅히사회로부터가열차게배제되어야하며, 그들의파괴적행동을막기위해개조되어야한다.” (V. Teofilovic, Student, 1969 년 5 월 13 일, 1 페이지)

유고슬라비아의경험은세계혁명운동의경험에새로운점을더했다. 이들의존재는사회주의혁명은과거유고슬라비아의역사적사실이아니며, 미래의투쟁임을보여준다. 이투쟁은이제막시작하였으나, 아직어디로향할지는모른다. ” 바뵈프가적은바와같이, 관리자는관리를위해혁명을조직하지만, 진정한혁명은오직아래로부터대중운동의형태로만가능하다. 사회의모든자발적인간활동은역사적주체로서등장하여정치적정체성과인간소외의형태로서작동하는바로그정치의소멸을기초하는대중의의지를창조한다.” (M. Vojnovic, Student, 1969 년 4 월 22 일, 1 페이지) 이관점에서혁명은한대학, 공장, 민족국가에한하여생각할수없다. 더나아가, 혁명은언제어디서이미일어난사간의반복도, 과거관계의재생산도아니다. 다만새로운것의창조일뿐이다. 다른유고슬라비아작가의말을빌리면, ” 단지생산과창조의갈등이아니다. 더큰관점에서동구뿐아니라서구에서도절차와모험의갈등이다.” (M. Krleza, Politika, 1968 년 12 월 29 일, Student, 1969 년 1 월 7 일에서인용)

당이론가들은자본주의사회의’ 신좌파’ 는’ 사회주의국가’ 의학생운동과전혀관련이없다고주장한다. 이러한관점은유고슬라비아의학생운동이자본주의국가와같이잘발달하지않았다는점, 1968 년 6 월이전까지유고슬라비아학생들이수동적이고, 친미적감정을가지고, 소부르주아적인생목표를가졌다는점에서아주잘쳐줘야과장된주장이다. 그러나이들이론가들의바람에도불구하고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그렇게뒤쳐지지않았으며, 사회주의혁명이라는과제에적합한새로운조직양식을향한탐구는유고슬라비아학생에게도빠지지않았다. 1968 년 5 월, 프랑스에서모든형태의분리된사회권력을탈소외시키기위한거대한투쟁이역사적경험을쌓고있을때베오그라드법학교수들사이에서’ 학생과정치’ 라는주제가논의되고있었다. ’ 논의의성격을결정한주제’ 는’ 스토티자노비치박사의효현에의하면’ 복지국가’ 의신화와전통적부르주아민주주의는물론선진서구사회에서혁명적목표를모든수단을동원하여무디게만드는데성공한사민주의정당들, 즉전통적좌파정당들에맞선’ 신좌파’ 운동에서의인간참여가능성이었다.” (“The Topic is Action”, Student, 1968 년 5 월 14 일, 4 페이지)

1968 년 5 월,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자본주의사회의동지들과많은공통점을갖게된다. 베오그라드학생신문의 1 면사설에서는” 현재사회정치형국의갈등은수많은문제에대해쉽고빠른해결책이없다는사실에의해더욱침체해졌다. 다양한형태의갈등이대학에서수면위로떠올랐고, 전망의부족, 다양한문제들에대한해결책의부족이다양한행동양태의뿌리에있다. 이를느낀수많은이들이이갈등이충돌로, 중대한정치적사태로변질지, 또이사태가어떤형태로일어날지를묻는다. 누군가는총체적사회구조를특정짓고이상황의직접원인이되는조건에영향을미칠빠르고효과적인방법이없기에이사태가무더질뿐파할수없다고말한다.” (“Signs of Political Crisis”, Student, 1968 년 5 월 21 일, 1 페이지) 같은신문의 1 면에서는’ 노동의핵심에가려진소외’ 에관한맑스의아래인용문을게재하였다. ” 노동은부자들에게는경이로, 노동자에게는고통을생산한다. 궁전을짓고노동자에게는움막만을준다. 아름다움을생산하지만노동자에게는끔찍함뿐이다. 기계가노동을대신하지만, 노동자의일부를야만적일자리에내팽개치고, 나머지를기계로만든다. 정신을창조하지만, 노동자에게는무지와크레틴증만을안겨준다.”

같은달, 베오그라드청년연맹기관지사설에서는” 우리가보건대유고슬라비아학생의혁명적역할을 (학생들의물질적, 사회적상황의문제와모순을포함한) 일반적인사회문제와모순을해결하기위한참여에있다. 특정학생문제는그것이아무리심각할지라도고립되고일반적사회문제와떨어져해결될수없다. 학생의물질적상황은사회의경제적상황과분리될수없고, 학생자주관리는자주관리의사회적문제와분리될수없다.” (Susret, 1968 년 5 월 15 일) 이기관지의다음호에서는’ 현재청년

정치참여의조건과취지'에관한논의를담으며아래와같은관측을내놓았다. "따라서대학은보다넓은범위의사회제도와분리될수없기에대학개혁은사회전체의개혁, 또는어쩌면혁명없이불가능하다. 그렇기에서상행동의자유, 그리고소위대학의자율성은사회전체가변화할때, 그리고이변화가총체적자유와자주관리의수위를바꾸는것이가능할때에만가능하다는사실역시되따라온다." (Susret, 1968년 6월 1일)

1968년 4월, 자본주의국가들의동지들처럼유고슬라비아의학생들도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의연대와미국의군국주의에반대하는시위를열었다. 루디두치케(독일신좌파학생운동가 - 역자주) 가슈프링거(독일의보수언론, 디벨트, 빌트등신문사소유 - 역자주) 가급진적서독학생들에맞서별인기획의결과로피격당했을때,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독일사회주의학생연맹과의연대를위한시위를열었다. 베오그라드의학생신문은루디두치케와독일맑스주의철학자에른스트블로흐에대한기사를실었다. 유고슬라비아학생들은세계학생운동의경험을알수있었다. "올해여러나라에서벌어지고있는학생봉기는청년은사회를바꾸는과정에서중요한사업을맡을수있음을보여준다. 용기와투쟁에대한의지가상승했고, (혁명이지적대담의주제로자주올라와) 수많은학생들의비판적의식이투철해졌다는점에서이러한봉기는우리대학의동아리들에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Student, 1968년 4월 23일, 1페이지) 파리는이투쟁에대한의지를나타낼수있는조직형태의예시를보여주었다. "파리뿐만아니라독일, 이탈리아, 미국학생들의새로운혁명적운동에서완전히새롭고무엇보다중요한점은이운동은현존하는모든정치조직으로부터독립되었기에가능했다는것이다. 공산당을포함한모든조직들은체제의일부가되어일상적인의회주의놀음의규칙에영여붙어그들이차지한지위를내려놓을각오를하고이미친듯이용감하고언뜻보기에가망없어보이기까지한이러한행동에참여할의지가없었다." (M. Markovic, Student, 1968년 5월 21일)

유고슬라비아학생운동의발전에기여한또다른요소는베오그라드학생들의학생회내관료제에대한경험이었다. 같은해 4월, 철학부학생들은폴란드의맑스주의지식인탄압에항의하는서한을모았다. "오늘날전세계에서학생들은인류사회를창조하기위한투쟁의최전선에있기에우리는폴란드사회주의체제의반응에매우경악했다. 자유로운비판적사고는어떠한권력으로도탄압받을수없으며설령그것이표면적으로사회주의이상에기대고있을지라도그러하다. 우리청년맑스주의자들은오늘날사회주의국가에서반유대주의적공격과타협하고이를내부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이용하는것을이해할수없다. 우리는폴란드사회주의가과거수많은아픈경험을겪은이후에내부문제를비민주적인방식으로해결하려드는것이나그해결책으로맑스주의사상을탄압하는것을이해할수없

제의도, 그리고그러한행동의의미를적시해야합니다." 라고말했다. (J. Blazevic, Vjesnik, 1969년 5월 9일, 2페이지)

유고슬라비아'신좌파'의탄생에대해유고슬라비아대통령에서부터크로아티아통령에이르기까지보인공식입장은 Student 지의 5월 13호 1면에서풍자적이고해학적으로요약되었다. "(...) 반대파상당수가 스스로민주주의를위한다고표방하지만, 그들이진짜로원하는것은일종의순수내지는온전한민주주의, 일종의자유지의주의라할수있다. 실제로그들이싸워연고자하는것은감히자신들의의지와신념에따라말하고행동하겠다는기득권이다. 우리는분명히모든이가스스로에게책임을지는우리사회에대한이러한반민주분자들의모든시도를저지할것이다. (...) 이들반대파에맞선투쟁에서민주적수단이충분한성과를내지않는한비민주적수단을쓰지않을것이다. 민주적투쟁의가장훌륭한예는관료권력과대결이다. 최근까지관료주의가우리의가장큰사회악이었던사실은잘알것이다. 그리고관료주의는어디로갔는가? 눈녹듯사라졌다. 우리의자주관리체계와민주세력의압박으로스스로자연히녹아내려자주관리에전혀적합하지않은사람이나정부구조조차하나도바꿀필요가없었다. 반대파들은우리의지대한사회격차를공격해대며부당하다고까지말한다. (...) 그러나우리사회의전위세력이자통치세력이며진보적경향을담지한역사적주체인노동계급은다른사회계층을희생하여특권을누려서는안된다. 우리체제의미래건설을위해희생할준비가되어있어야한다. 노동계급은이를염두에두고모든인민이가난한사회를만들평준화를위한요구임이명백한사회격차의급격한해소에대한요구를분명히거부해야한다. 그러나우리의목표는모두가부자가되어필요에따라분배받는사회이다. (...) 반대세력은또한계속해서실업문제를가지고공격한다. 우리체제의반대자들은일자리를만들어내는것이 (6월에창문을여는것만큼이나) 뭇대수냐고말하며훈련된청년인민들이경제개혁을가속할것이라고말한다. (...) 현재우리의발전단계에서는더많은일자리를만들어낼수는없지만다른해결책을만들수는있다. 국경을개방하여노동자들이해외에서자유롭게고용될수있게할것이다. 우리모두가고향에서일할수있다면정말좋은것이다. 그러나개혁을위한투쟁은마지막궁극의장에마주했고상황은명백히개선되고있다. 실제로우리인민들은지금도나쁘게받아들이지않고있다. 예전에는한국가에서만일할수있지만, 이제는전세계에서일할수있다. 한국가에서전세계로향하는것은무엇을의미하는가? 이는상호이해와우애를이끌어낼것이다. (...) 이들각종극단주의자, 좌경분자, 우경분자, 무정부자유주의자, 급진주의자, 선동꾼, 선교사, 교조주의자, (심지어우리의혁명이위기해쳐했다고주장하는) 사이비혁명가, 반개혁주의자, 비공식조직 (...), 일신론자, 토속주의자 기타등등우리의적들을모두일일이설명할수는없을것이다. 이들모두는사태의온상이라할수있는것들을보여준다. 이들비공식조직과극단주의

Student 지의 다른호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모든것을 일관적으로 급진적이라고 과장하여 판단하는 당사자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 사회의 전환을 위해 기여하는 수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현실에 기대어 존재하는 벽에 의존하며 현실에 대한 그들의 미신적 감각과 소위 현실 정치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해 그것이 그들이 피해를 봤다는 장애물인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D. Grlic, Student, 1969년 4월 28일, 3페이지)

" 우리는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자주 관리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념적 형식으로 소외되어 있을 때 자주 관리에 대한 선언과 포고를 내리는 식으로 그것을 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떠한 투쟁의 필요성도 부정할 채주적 통제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퍼뜨리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미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을 한 왜, 누구와 싸워야 하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글)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주의 이념은 공허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배 엘리트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깨버렸다. 그러나 비판적 분석, 혁명 이론의 형태로 폭로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발적 조직에 바탕한 혁명적 행동은 아직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과거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이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며 자신들의 정권을 노동계급의 자주 관리로 규정하려 들고, 상품 경제를 이론가가 된 자기 자신의 입으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1969년 5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약한 크로아티아에서 선출된 새 통령은 " 우리의 발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표들은 크로아티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경제적 발달이 온전히 조화로우며 진보적임을 보여줍니다"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 노동자의 실업과 강제 망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임시적으로 해외에 고용된 우리 인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체계화되고, 발전되고, 우리 체제, 경제 및 도덕 내의 통합된 일부로 포함될 것입니다." 라며 곧 해결될 문제라고 평했다. 그는 또 한 현재 체제와 그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 좌파적이고 혁명적인 글귀부터 국수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철학, 문헌학, 노동력의 움직임, 민족과 공화국의 경제 상황이라는 형식으로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내놓은 망상, 혼돈, 절망, 안달, 공상적인 허상" 이며, "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총체적 발전과 현실의 맥락과 패어 놓고 패배주의, 의기소침, 때로는 국수주의적 행동에 이용하기 위해 과장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들을 가열차게 저지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 인민에게 이러한 시도를 체계적이고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들의 특성과 방법, 실

다. 또한 노동계급과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하는 진보적 학생 운동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파렴치하다고 여긴다." (Student, 1968년 4월 23일, 4페이지) 철학부 학생들의 모임은 이 편지를 폴란드로 보냈지만 유고슬라비아 학생 연맹 대학 위원회는 이를 반대했다. 왜냐? 철학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관료들이 가진 기능과 이해 관계를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 유고슬라비아 학생 연맹 대학 위원회는 정치적 활력을 잃고 행동하지 못하며 무력하게 무언가를 할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무도 조직에 따지지 않고 조언이 들어오지 않는 한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는 학생 청년들의 표현에 대해 나쁜 전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더 나쁜 태도이다. 대학 위원회가 행동의 핵심에 대해 이해할 길 그만 둔 때 논의는 형식의 영역으로 이어진다. ' 어떤 의견을 내야 하나?' '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수동적인 분위기에서 누가 행동을 시작할 것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대학 위원회가 다른 어떤 모임도 아닌 바로 그 구성원 자신들이 제기한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의 핵심 원리가 구성원 수준에서의 사결정을 내리는 자주 관리라는 점을 생각할 때 모순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죄는 오직 우리가 자주 관리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직은 스스로 해산할 수 없으며, 해산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우리 행동의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위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나 명령도 제도화된 형식도 없이 평범한 군중의 의해서 작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같은 문서)

노동소외에 기초한 사회관계와 대학 문제의 불가분성, 세계 ' 신좌파' 의 경험, 대중에 의한 자발적 조직과 관료주의적 조직 사이의 차이에 대한 각각의 요소와 함께 베오그라드 학생들은 행동에 나섰다. 행동을 촉발시킨 사건은 사소했다. 1968년 6월 2일 밤, 뉴베오그라드의 학생 기숙사 근처 야외에서 열리기로 한 공연이 실내의 작은 공간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다. 공연을 보고자 했던 학생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져 이윽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가담했다. 시위대는 정부 청사를 향해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경찰 (유고슬라비아의 자주 관리적 언어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 민병대' 라 불린다) 에 의해 저지당하여 학생들은 민병대의 지팡이로 두들겨 맞고 상당수가 체포되었다.

다음날인 6월 3일, (칼 맑스 붐은 대학으로 개명된) 베오그라드 대학을 구성하는 학부 다수와 뉴베오그라드 거리 곳곳에서 총회까지 지속적으로 열렸다. " 학생들은 토론에서 유고슬라비아 사회의 총체적인 사회 격차, 실업 문제, 사유 재산 증가, 특정 사회 계층의 불로소득, 노동계급 다수의 견딜 수 없는 조건,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토론은 ' 노학연대', ' 우리는 노동 인민의 아들이다', ' 사회주의 부르주아 물러가라!', ' 언론 자유 집회 자유' 등과 같은 구호와 박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Student, 특별호, 1968년 6월 4일, 1페이지)

언론탄압에 이어 경찰의 탄압이 들어왔다.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언론은 학생들의 투쟁을 다른 인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저 학생들의 투쟁을 학생문제에 의한, 특권을 가진 동떨어진 집단의,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투쟁으로 보도했다. 베오그라드 당국이 검열한 Student 지의 6월 4일자 1면에는 초기의 혁명적 투쟁을 특권층 학생들의 반향으로 규정하는 언론의 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언론은 다시 한번 대학의 사건을 왜곡하는 데 성공했다. 언론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투쟁한다.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의 이해를 망라한 투쟁,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한 투쟁이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것이 시위대의 발표가 다른 무엇보다도 부당한 사회적 격차를 언급한 이유이다. 학생들에 의하면 (사회불평등에 맞선) 자주관리와 계획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도 한 이 투쟁은 노동계급과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신문은 부당한 사회적 격차에 대해 언급한 발언은 한마디도 인용하지 않았다. (...) 또한 집회와 시위에서 외쳤던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를 위하여, 노동자 연대 등 노동자와 학생의 길과 이해관계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하나된 감정과 생각을 담은 주요 구호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있다." (Student, 1968년 6월 4일, 1페이지)

6월 5일, 유고슬라비아 학생연맹은 성장하는 운동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대변인을 맡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평의회, 집회, 데모의 학생들이 요구한 혁명적 목표를 포함한 '정치행동강령'을 제시하였지만, 동시에 '2부' '대학개혁'이라는 조항을 부록처럼 끼워 넣었다. 이 조항은 나중에 새로이 깨어난 유고슬라비아 학생운동을 다시 잠재우는 데 핵심 역할을 맡는다. 정치행동강령의 1부는 사회불평등을 시작으로 고용, '공산주의자 동맹을 포함한 모든 사회정치단체의 민주화', 사회재산의 사유재산으로의 왜곡, 부동산 투기, 문화의 상업화 등을 짚었다. 그러나 급진적 학생들이 1부에서 상대적으로 명확히 명시한 그들의 목표에 만족하여 읽어보지도 않은 2부는 완전히 다른, 사실상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의 첫 번째 요구는 1부에서 밝힌 목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체제의 현재 요구 조건을 대학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상업주의적이고 기술관료주의적인 체제가 요구하는 바를 만족시키는 기술관료주의적 개혁을 요구한다. "우리 경제와 자주관리적 관계의 사회문화적 발전을 위한 요건에 맞춘 학교체제의 즉각적인 개혁(...)" (Student, 특별호, 1968년 6월 8일, 1-2페이지)

이 학생봉기를 그들이 맞았던 지배적 사회관계의 요건에 종속되게 하기 위한 조작이자 조잡한 뒤집기는 다음 해까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체제의 즉각적 반응은 훨씬 분명하여, 억압, 고립, 갈라치기를 이어나갔다. 경찰의 탄압은 폭력, 연행, 사건이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온전한 내용을 담은 학생신문 검열 등의 형태를 띠었다. 그리고 6월 6일 밤, "비밀경찰요

5) 사회적 소비를 위한 기금은 사유 아파트나 별장의 건설 또는 자동차 구매를 위해 쓰인다. (...)" (Student, 1969년 2월 18일, 1페이지)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의 공식이념은 상업주의·기술관료주의적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사실은 오히려 그들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한다. 1969년 3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9차 당대회 폐회식에서는 6월의 혁명가들의 비판을 인용하면서 이를 기각해 버리고 공식이념을 재확인했다. '상품생산이 사회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여기서도 다시 나온다. "사회주의 하 상품생산의 경제법칙은 현대 생산력과 합리적 경영 발전의 강력한 지지대로 작용한다." 이 문구는 '사회주의' 하 상품생산의 대안인 스탈린주의뿐이라는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한 악마의 논리에 기대고 있다. "정부의 행정관료주의적 관리와 사회적 재생산은 현실 관계를 무너뜨리고 독점과 경영 환경의 소위 관료주의적 주관주의를 형성하여 사회생산물 분배의 기생충과 비합리성을 필연적으로 양산하게 된다. (...)" 따라서 선택은 하나다. 현 상태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1948년 이전까지 공산주의자 동맹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에 강제해왔던 바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든가. 이러한 논리는 유고슬라비아의 공식적인 구호인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이념이 말하는 바를 무너뜨리는 데에도 쓰인다. 이들의 해석은 "능력과 기여의 차이를 무시한다. 이러한 요구는 강력한 생산과 사회위에서 인공적이고 미신적인 균등화를 만들어 내고 빈곤과 불평등과 특권을 만들어 내는 행정관료 권력의 형성을 초래한다." (Student, 1969년 3월 18일)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은 역사적으로 자본가계급이 지주들의 귀족정에 맞선 투쟁 과정에서 등장한 것으로, 현재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이 원칙은 부르주아들이 말한 것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때문에 유고슬라비아 무역업체의 성공한 상업주의적 기업가들의 막대한 개인소득 (과성과급) 역시 그의 물질적 성공이 그의 훌륭한 능력과 사회에 대한 기여를 입증한다는 이유로 구호에 따라 정당화된다. 다시 말하면, 분배는 노동에 대해 상품경제에서 시장이 내리는 사회적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분배체계는 (맑스가 자본주의 상품생산의 반대라고 정의한)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 상품생산이라고 불리는 사회관계 체제를 설명하는 "능력에 따른 노동, 시장성과에 따른 분배"라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문건에 대한 변고는 정교한 논쟁 방식이 아닌 지금이 가능한 최선의 세계라는 보수적 자기 만족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자료가 담고 있는 정신과 기본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우리가 마주한 모든 관계와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법을 제공할 계획에 대한 저항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가능성 너머에 있는 듯하다. (...) 이것이 현실이다. 각 기업, 지부, 지역 등의 각기 다른 노동 조건을 배제할 수 없다. (...)" (V. Rakic, Student, 1969년 3월 11일, 12페이지)

라비아는마법과같이' 선진적이고진보적인사회체제', 그러니까상업주의적이고기술관료주의적이며군사관료주의적인인간공학의신천지로 도약할것이다.

학생들은노동자들로부터분열되었다. 그들은투쟁을재기했다. 이는 학내관료들이상업주의-기술관료주의적엘리트들보다더효과적으로 충성한결과였다. 관료들은학생들로하여금' 대학개혁' 을' 자주관리' 하고그들을경영자, 기술자, 관리자로만드는과정에참여하라고다독였다. 한편, 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은이전보다훨씬더많은것을생산하고, 그들의노동이만들어낸산물이노동자에맞서권력을휘두르는다른사회 집단의권력과부를증대하는것을목도하였다. 헌법에따르면, 노동자는 스스로를다스린다. 그러나 Student 지의노동자와의인터뷰에의하면" 문서에서만그럴뿐이죠. 경영자가사람들을고르면, 노동자는따라야합니다. 그게이곳이돌아가는방식이죠." (Student, 1969 년 3 월 4 일, 4 페이지) 노동자가이계속해서증가하는부와권력의사회적불평등에맞 선투쟁을만들어내려한다면, 유고슬라비아의끔찍한실업을마주하게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를떠나는것외에는답이없는수많은실업예비군이 그를대체하고자기다리고있다. 노동자는여전히' 스스로를다스릴' 강력한수단을가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의노동자들도가지고있는파업말이다. 그러나한분석가에따르면, 사회의혁명적조류와나머지노동계급으로부터분리된노동자들의파업은' 경제주의적' 파업이며, 유고슬라비아 사회에서노동자의힘을증대하지못한다고한다. 오히려반대의효과를일 으키는데, "11 년간의파업경험이무엇을바꾸었는가? 파업이터지는모 든곳에서파업을일으킨바로그사회관계가재상산된다. 예를들어, 노동자들은분배에서부당한대우를받았다는이유로봉기하면, 이전에부당한 대우를자행했던이들이받았던것을토해내고, 파업이멈추고노동자는다 시피고용인으로돌아간다. 그리고이전에자신의자리를유지하기위해서 노동자들을지켰던이들이다시그렇게된다. 다시말하면, 임금노동관계 는이를해결하기위한파업의핵심원인으로, 지속해서재생산된다. 따라서이런질문이따라올수밖에없다. 노동계급이현재기업상황에서온전한 의미로스스로를해방시키는것이가능한가? 아니면전사회의수준을발달 시키고, 서로다른기업, 부서, 공화국사이의어떠한분리도허용하지않는 과정인가?" (Susret, 1969 년, 4 월 18 일)

노동계급을착취해왔던전문가에대해, Student 지는기업의다양한 유형에대한자세한설명을실었다. "1) 기업사무원 (관리자, 경영자, 영업사원등) 은경영이사회, 노동자평의회, 또는기타자주관리조직으로부터임금을받고기업에게경제적으로이득이되도록법조항이나도덕을어 긴다. (...) 2) (...) 3) 유령일자리는탈세를위해존재한다. (...) 4) (...)

원두명과경찰관한명이학생신문을나눠주던학생들을아만적으로공격, 신문 600 부를압수하여찢고불태웠다. 모두신문을받고자모인수많은 시민들앞에서벌어진일이다." (Student, 1968 년 6 월 8 일, 3 페이지)

경찰의탄압외에도지배적 이해관계자들은학생들을노동자들로부터 고립시키고갈라놓는데성공하였다. 그들은일시적으로그들의' 진보적 학생운동과그학생들이온전히해방시키고자목표하는노동계급사이의 갈등을조장하고갈라놓으려는파렴치한시도' 를달성했다. 이는다양한 방식으로이루어졌다. 학생언론검열과공식언론의호도는노동자들이학생들의요구에관심을갖지못하게했다. 기업관리자와전문가집단은학생들의투쟁을'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설명' 해주면서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공장'을' 폭력적인' 학생들의공격으로지켜야한다고가르치고언론에' 노동자공동체' 의이름으로경찰에게유고슬라비아의자주관리를 폭력적인학생들로부터감사하다는편지를보냈다. " 전해지는글과말에 의하면, 학생들은국가민병대에게무력을사용하고, 경찰서를포위하여 막았다. 처음부터학생운동이도시와대학시설에서보여준질서와자기통 제는폭력이라는낡은단어로묘사됐다. (...) 노동자와학생의갈등을만 들고자하는이관료제는공산주의자동맹, 기업과국가기관에또아리를틀 고특히언론에영향력을드러내고있다. (언론은매우권위적인구조를가지면서오직책임과비판으로부터벗어나기위해자주관리에기대고있다.) 노동자-학생운동에직면한관료제는발밑의땅이무너지고그들이향하고 자하는음침한곳이사라지는것을느끼며공포에질려무의미한주장을질 러내고있다. (...) 우리운동은시급히노동계급과이어져야한다. 우리의 기본원칙을설명하고, 이를실현시켜야하며, 보다풍부하고정교해져야 하고, 구호에그쳐서는안된다. 그러나이것이야말로관료제가두려워하 는것이고그렇기에그들은노동자들에게학생들로부터공장을지키라하 고학생들이공장을파괴할것이라고한다. 이얼마나길이남을명청한것인가!" (D. Vukovic, Student, 1968 년 6 월 8 일, 1 페이지) 이리하여유 고슬라비아사회주의의자주관리자들께서는마치프랑스의 (CGT, 프랑 스공산당등) ' 노동자조직' 이그로부터몇주전프랑스노동자들을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지켜냈듯이유고슬라비아노동자들을유고슬라비아학 생들로부터지켜내는데성공한것이였다.

탄압과분열은유고슬라비아혁명운동을끝장내지못하였다. 평의회 는계속열렸고, 학생들은계속해서노동자와연대하고사회전환이라는책 무를실현할수있는조직방식을찾고있었다. 마지막단계는운동을진정시 키고가능하다면재기시켜맞서싸워야할체제의요구에복무하게만드는 것이였다. 이단계는 Student 지의 6 월 11 일자신문에게재된티토의중 대연설의형태로나타났다. 절대다수의인민이중국의' 개인숭배' 를지상

최악의죄로여기는사회에서절대다수의학생은모든유고슬라비아의공공기관, 가정, 신문 1 면에지난사반세기동안사진이걸려온인간(티토 - 역자주) 의아래와같은말에박수를보냈다. "...이시위들과그전의일을생각해보건대, 청년및학생들의봉기는자발적인행동이라는결론에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시위가전개되고이후거리에서대학강당으로이러집에따라, 이사태를자신들의뜻대로이용하고자하는외세의요소들이점차침투하고있습니다. 가장반동적인것에서부터마오쩌둥의이론에기댄급진적요소와같은가장극단적인것에이르기까지다양한경향과요소들이있습니다." 문제를사상의취지에서사상의근원(외세사상의외세적요소) 로뒤집어혁명적학생들을고립시키고분리시키려는이러한시도이후공화국대통령(티토 - 역자주) 각하께서는토착적사상만을가진바른토종학생들을회복시키려노력하시었다. " 그러나절대다수, 그러니까90% 정도의학생들은정직한청년들이라고생각합니다. (...) 대학내최신정세를보면 90% 의학생은약에찌들지도않고, 저많은질라스(티토의정적으로당원의계급화를비판함 - 역자주), 란코비치(티토의정적으로스탈린주의적중앙집권통제경제와세르비아중심주의를지지함 - 역자주), 마오주의자들이학생들에게관심있다는명목하에그들이원하는바를이루려는것을허락하지않는우리의사회주의자청년들입니다. (...) 우리청년들은올바릅니다. 그러나우리는그들에게더많은관심을가져야합니다." 학생들에게그들이지금까지해왔던것을하지말것을말함으로서, 자주관리유고슬라비아의대통령각하께서는그들이어떻게해야할지를말한것이다. " 동지들그리고노동자여러분, 나는우리학생들이이들문제에대해건설적인시각과해법을통해도울것이라고호소합니다. 그들이우리가하는일을따르게하십시오, 그것은그들의권리입니다. 그들이우리일상에서자기역할을하게하고, 모든것이불분명하거나분명해야할때나를찾을수있게하십시오. 그들의대표가찾아오게하십시오." 투쟁의취지와목표에대해티토는유치원생들앞에서그들의항의를하나하나들어주겠다고약속하며이렇게말했다. " 이항쟁은어느정도는학생들이내가내 스스로물어보았지만해결하지못한것이있다는것을발견한결과입니다. 지금학생들에게이를해결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을약속하며, 학생들역시나를도와줄것이라믿습니다. 또한, 내가이를해결하지못한다면이자리에서내려올것입니다. 공산주의자로서의자각이있는오랜공산주의자라면자신이있는자리를고집하지말고, 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인민에게그자리를기꺼이내줘야한다고봅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학생들에게호소합니다. 이제는학업으로돌아올시간입니다. 시험이얼마안남았습니다. 여러분의성공을빕니다. 만약여러분이계속시간을낭비한다면부끄러운줄알아야합니다." (Tito, Student, 1968 년 6 월 11 일, 1-2 페이지)

' 학생조직' 이대학개혁을위한' 투쟁' 을선도하는동안, 학생들은전혀다른목적으로투쟁을위해스스로를조직하기시작한학생들은다시수동적이고정치적으로무관심해졌다. "6 월은학생들의의식이폭발한시기였다. 6 월이후에는여러미로그이전과비슷해졌는데, 이는사회의6 월의사건과그것이나타낸목적에대한부적절한대응으로설명가능하다." (Student, 1969 년 5 월 13 일, 4 페이지)

' 대학개혁' 의취지는베오그라드대학총장에의해정의되었다. 6 월사건반년후 Student 지에실린그의방침에의하면, 총장은학생의노동계급으로부터의분리나, 학생의기술관료나군과의체계적통합등학생들이룩집어맞서싸운것들을' 목표' 라고집어넣었다. " 대학과학생의물질적입지를향상시키기위한투쟁은우리의지속적인임무입니다. (...) 현재대학업무에관한핵심문제중하나는다른패배주의와선동에맞서싸울책무입니다. 우리대학그리고학생청년은우리사회주의조국의수호에기꺼이그리고열렬하게참여했고, 참여할것입니다. 우리를공격하고자하는사방의모든침략자들에맞서우리의방어력을건설하기위한체계적조직은우리모두의빠르고지속적이며효과적인행동이되어야합니다." (D. Ivanovic, Student, 1968 년 10 월 15 일, 4 페이지) 이러한발언들은' 대학개혁의취지는자주관리' 라는내용을담은길고모호한문장들에뒤이어나왔다. 총장이' 자주관리' 의' 취지' 에대해이해하고있는바는위에인용한바로저발언에서분명히확인할수있다.

학생들이적극적으로대학개혁을위한' 투쟁' 에참여하지않아, 그책무는그문제에관심있는전문가들인학부와교직원들에게넘어갔다. " 교사다수와그동료들의주요대화주제는자동차, 별장, 그리고편한삶이다. 학계의저술에서냉철하게비판받은사회엘리트들의주요대화주제도그와같은데, 정작그들은그들자신이야말로그엘리트집단의중요하고필수불가결한부분이라는점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 (B. Jaksic, Susret, 1969 년 2 월 19 일)

대학개혁으로가는길에서, 유고슬라비아의대표적인(관변) 경제학자중한명은마술적요소와함께관료주의지상낙원을옹호하였다. 그는몇년전소련의' 사회공학자' 가국가관료제에의한인간활용을위해개발한' 산술적' 국가생산수지' 를역설하였고, 이제는' 실제사회체계분석을위한일반체계이론의도입' 을옹호하고있다. 이일반체계이론이라는것은미국과같은' 선진적이고진보적인사회체제' 에대한초신과학적발견이다. 이에의하면' 일반체계이론은미래사회과학계의모든전문가들뿐아니라영역에관계없이사회발전에참여하는모든전문가들에게필수불가결한것이될것' 이라고한다. (R. Stojanovic, "On the Need to Study General Systems Theory at Social Science Faculties", Student, 1969 년 2 월 25 일) 만약대학개혁을통해이일반체계이론이라는것이모든미래유고슬라비아기술관료들의머리에주입된다면아마도유고슬